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청렴경영 가이드

07

| 회계기준과 기업윤리

2020 July | VOL. 91

Accounting Standards
and Corporate Ethics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년 7월 1일(매월발행, 통권 87호, 비매품) 발행인: 전현희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신고

Cover Story



분식회계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식이라는 말은 언론 사태 이후 언론이 표현한 “Cosmetic Accounting”의 일본식 번역에서 나왔습니다. 분(粉)은 가루 화장품, 식(飾)은 장식이라는 뜻이니, 곧 화장을 하여 실제보다 예쁘게 보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해, 건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데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이유와 회계부정으로 치명적인 위기를 맞은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C · O · N · T · E · N · T · S

- 01 전문가코칭
회계기준과 기업윤리
- 02 사례돋보기
기업의 거짓말, 분식회계
- 03 보고서리뷰
일본기업의 우등생, 도시바는 왜 회계조작을 했을까?
- 04 SDGs로 알아보는 기업윤리
국내 기업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사례(4)
- 05 국내외 동향
- 06 행사소식
- 07 문화 속의 기업윤리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 08 지식 1G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09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 10 독자퀴즈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 의 형

회계의 투명성은 왜 중요한가요?

회계란 기업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회계를 통한 보고의 특징은 일정한 기준과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과 금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회계가 투명하다함은 회계보고가 주어진 기준과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고내용에 거짓이나 숨김이 없음을 뜻합니다. 국가 경제의 성공은 자본시장과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성공으로 판가를 납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때 시장은 커지고 국가 경제도 성장 발전합니다. 투자자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려면 양질의 회계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기업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작동을 멈추거나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회계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 코칭

회계기준과 기업윤리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의 부정이란 의도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진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주주나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부정은 투자실패나 사업부진, 횡령 등을 감추기 위한 경영자 차원의 부정이 일반적이지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의한 부정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대주주가 관여되는 부정은 자본유치,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허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국의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물론 기업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대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이해와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중견 규모와 중소기업들의 관심 부족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족은 회계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회계부정이 얼마나 중대한 사회적인 악이고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경영진들을 회계부정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합니다.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조건은 (회계의 생산자인 기업 또는 기업 경영자의) 정직성과 능력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정직성을 회복하고 회계에 관한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선 회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계기준원은 높은 품질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여 한국기업의 회계 능력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감독기관이 기존처럼 회계를 사후에 감독하는 것보다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돋보기

기업의 거짓말, 분식회계

-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국내에서만 천만 부가 넘게 팔려나간 초 히트작이다. 온라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시리즈는 어느 순간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림작가는 출판사가 정당한 인세를 주지 않기 위해 판매부수를 축소하는 ‘역분식회계’를 했다고 소송을 했고, 오랜 법정 분쟁 끝에 법원은 해당 출판사에 37억여 원을 그림작가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출판사는 다른 그림작가와 계약하고 출판을 재개했으나, 예전만한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의 배우가 갑자기 바뀌면 어색하듯, 만화도 그림체가 변하면 재미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수익을 정당하게 나누지 않으려 했던 욕심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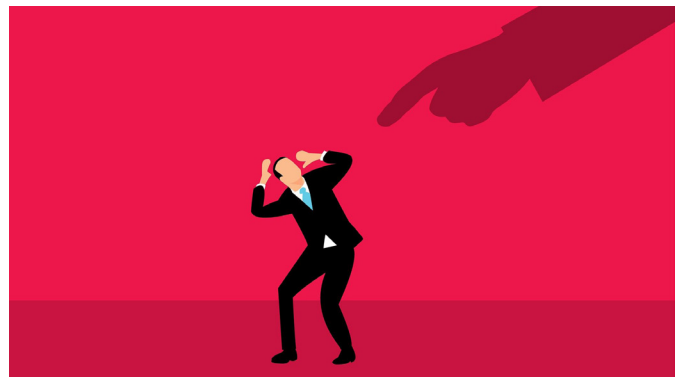
이처럼 분식회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기업의 대표적인 비리 행위다. 이번 사례돋보기에서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회계윤리의 중요성을 상기해보자 한다.

▪ 제2의 스타벅스의 몰락 - 중국 루이싱커피

루이싱커피는 2017년 10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시작한 커피 브랜드다. 중화사상을 내세운 애국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면서 3개월 만에 13개 도시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샐러드나 음료 하나만 주문해도 배달을 해주는 데다 수시로 할인쿠폰을 뿌리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9년 5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더욱 기세를 몰았고, 2019년 말 전체 매장수를 4507개로 늘리며 스타벅스(4125개)를 추월해버렸다.



그러나 루이싱커피의 신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초, 상장사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머디 워터스 리서치가 루이싱커피를 공매도 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말한다. 머디 워터스 리서치는 루이싱커피가 분식회계를 했으며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이싱커피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머디 워터스 리서치는 2019년 3분기 기준 점포별 일평균 판매량과 평균판매가격이 각각 69%, 12%씩 허위로 부풀려졌다는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2만 5천 장이 넘는 영수증, 981일의 영업일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이 증거자료로 포함돼 있었다. 즉,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된 수량과 재무제표에 기록된 매출액이 크게 달랐던 것이다. 결국 루이싱커피는 분식회계를 한 것이 드러나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전문가들은 루이싱커피가 고품질 커피, 배달 서비스 등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이것이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과도하게 외형을 늘리는 과정에서 비용을 감당할 자금줄이 막혔다고 분석했다. 화려한 스토리와 거대한 규모가 기업의 단단한 내실을 담보하지는 못한 것이다.



▪ 실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의 비극 - 일본 후지제록스

후지제록스는 일본 후지필름의 산하 기업으로 복사기 등 문서관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2015년 도시바가 수천 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일본 증시에 충격을 준 것에 이어, 2017년 후지제록스 또한 회계조작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후지제록스 부정회계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났다. 후지제록스 뉴질랜드 판매자회사는 복합기 임대회계부정을 해 220억 엔의 손실을 보았다. 호주 판매자회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6년 간 양사 합계 375억 엔(약 3천 850억 원)의 총손실을 봤다. 후지제록스 측은 2015년 여름에 뉴질랜드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기업인 후지필름에는 매출에 문제가 없다며 허위보고를 했다.

후지제록스의 경영진까지 가담해 회계를 조작한 배경에는 일본에 만연한 ‘실적지상주의’가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의 기업문화로 인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관행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지나친 실적주의가 전 세계인이 믿고 쓰다는 ‘메이드 인 재팬’ 브랜드에 상처를 낸 것이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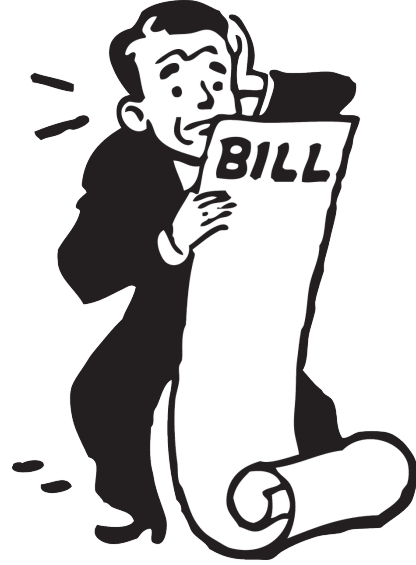


▪ 만수르의 축구, 회계부정으로 중징계 - 맨체스터 시티 FC

맨체스터 시티 F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프로축구팀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리그의 중위권에 머물렀던 맨시티는, 2008년 아랍의 거부인 만수르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2010~2011년 시즌과 2013~2014시즌 우승을 거머쥐고 승승장구하면서 최근에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의 단골 우승후보에도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꽃길’만 걸던 맨시티는 올해 2월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향후 두 시즌(2020~2021시즌-2021~2022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이 주관하는 클럽대항전 출전이 금지되는 징계를 받은 것이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은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유럽축구연맹은 구단주인 만수르가 개인 재산을 구단 선수 영입에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맨시티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맨시티는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뿐 아니라 3천만 유로(약 385억 원)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맨시티는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항소에 나섰다. 징계대로라면 핵심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찾아 타 팀으로 이적할 것이며, 구단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맨시티의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유럽축구연맹의 결정은 유럽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던 축구계의 각종 부정들을 이제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세계 최대 41조 회계 조작 사건 - 대우그룹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작년 말 세상을 떠난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자가 남긴 말이다. 실제로 세계경영을 주창했던 그의 대우그룹은 1970~80년대 압축성장을 해 온 한국경제의 명과 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기업이었다. 과거 고도 성장기를 구가하던 우리 정부는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을 펼쳤고, 대우그룹은 이에 힘입어 공격적인 차입을 통해 인수합병을 거듭하며 외연을 확장해나갔다. 1967년 자본금 500만원과 직원 5명으로 시작한 대우실업은 눈부신 성장을 했다. 1977년 서울역 앞에 세워진 대우센터 빌딩은 지상 23층 규모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1997년 IMF 사태는 당시 재계 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을 무력하게 쓰러뜨려 버렸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자 해외 채권자들의 상환 압력이 거세졌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그룹은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까지 드러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거래처 사정이 어려워져 받을 수 없게 된 부실채권도 정상 채권처럼 처리해놓았고, 연구개발비는 허위로 부풀렸으며 있지도 않은 설비와 재고자산을 장부에 계상해놓기도 했다. 외국에서 얻은 빚을 투자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대우그룹의 성장을 견인한 차입경영의 씩씩한 민낯이었다.

투명한 회계는 지속가능경영의 토대

분식회계는 오늘날 어디선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비리다. 그러나 입출금을 끊임없이 기록해나가야 하는 회계장부 특성상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게 마련이다. 중국 루이싱커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회계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외부의 공격에 한없이 취약해진다. 재기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투명한 회계 없이 비즈니스는 지속할 수 없다.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기업일지라도 예외는 없었다.

* 자세한 참고자료 리스트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웹진 내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리뷰

일본기업의 우등생, 도시바는 왜 회계조작을 했을까?

- 2015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우등생'으로 꼽혔던 도시바가 7년간 2248억 엔(약 2조 3629억 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됐다. 일본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아닌 경영자가 주도하는 경영자 경영 체제다. 일본의 기업가들은 일본식 경영 방식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식 재벌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영자 경영의 대표주자인 도시바가 무려 7년 동안, 그것도 역대 세 명의 사장들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해온 것이다. 그 속사정이 궁금해진다. 도시바는 왜 회계조작을 했을까?



잣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경영자들

도시바의 사장 임기는 대개 4년이다. 그런데 사장 퇴임 이후에도 회장·고문·상담역 등으로 회사에 남아 경영에 관여하는 원정(院政) 시스템이 있다. 회계부정이 시작된 시기에 사장을 지냈고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니시다 아쓰토시는 10년간이나 권력의 중추에 있었다. 이처럼 장기간 원정을 하기 위해서는 차기 사장에 자기 사람을 심어야 한다. 대개 자신이 관여했던 사업부 후계자를 지명한다. 때문에 차기 사장은 선대 사장의 실패를 덮어두려고 한다. 사장 시절 업적이 나쁘거나 전략사업이 바뀌게 되면 다른 사업부 출신이 사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경영진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진다.

일본 재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 회장단 취임도 경영진을 이익대상주의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다. 경단련 회장은 도요타, 신일본제철, 도시바 등 명문 기업 출신자들이 많다. 재계 대표가 되려면 경영자 시절의 업적이 좋아야 한다. 자연히 경영진은 자신의 업적을 부풀려 성공한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국책 사업과 밀접한 도시바

도시바는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다른 기업보다 끈끈했다. 도시바의 사장 출신 중에는 도시바의 상담역 자리를 유지하면서 도쿄증권거래소 회장직을 역임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도시바가 일본정부와 밀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에 열중했기 때문이다.

회계부정의 발단이 되기도 한 원자력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도시바는 2006년 미국 원자력 발전회사 웨스팅하우스를 6600억 엔에 인수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기치를 내걸고 원자력 발전 사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했다. 당시 니시다 사장은 2015년까지 원자력 발전 매출을 최대 3.5배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렇게 장래가 유망한 사업이 아니었다. GE, 지멘스 등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기업들은 향후 원자력 사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고 경쟁사인 미쓰비시 중공업도 비싼 매물이라며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바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무모한 인수를 강행**했다. 결국 도시바는 경영난에 빠졌고 이는 회계부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카리스마 경영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기업 시스템

일본 기업은 경영자 기업임에도 카리스마 경영자들이 많다. 권한이 사장에게 집중되었고 의사결정도 톱다운 방식인 경우가 많다. 경영자의 업적이 화려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해진다.

도시바에서 회계부정이 시작된 2008년에 사장을 지낸 니시다도 그러한 경영자였다.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제품화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1위로 올린 인물이었다. 회계부정의 단초가 되었던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다. 당시에는 샐러리맨답지 않게 리스크를 감수하며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CEO라고 평평이 나왔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라도 외부 환경의 변화는 막아낼 수 없다. 리먼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이 그것이다. 2008년 도시바는 리먼 쇼크로 2597억 엔의 손실을 봤다. 카리스마형 경영자에게는 뼈아픈 성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도시바는 1947억 엔의 세전이익을 냈다. 업계에서는 도시바의 V자형 반등을 극찬했으나, 이것은 회계부정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또한 엄청난 악재였다. 원자력 발전 사업 수요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업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경영자들의 수완이 발동됐다. 각 사업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며 사내 컴퍼니 제도를 도입하고, 각 컴퍼니의 수장이 경영의 최종 경영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도시바의 경영자는 업적이 좋지 않은 사업부문장들에게 ‘도전’을 종용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바의 ‘도전’ 문화는 어느 순간 회계부정을 해서라도 수치를 조작하라는 뜻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사장들은 아무도 자신이 직접 분식회계를 직접 명령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업부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업부문장들과 임직원은 ‘도전’을 이어온 것이었다.

제도 결함과 윤리 결여의 사내 감사

왜 도시바의 조직 내 감사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을까? 왜 직원들은 사장의 지시에 순종해 분식회계에 가담했을까? 여기에는 경영진에 거역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와 업적평가 제도가 있었다.

도시바에도 사내 감사를 위한 조직으로 ‘**사내 감사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장래 부문장이나 사장이 되기 위한 요직**이었다. 그러다 보니 감사부 직원들 중 회계감사 전문가는 드물었다. 실령 부정을 알아도 이를 지적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출세에 지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도시바 분식회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내부고발에 의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회계조작이 7년이나 묵인됐다는 것은 제대로 된 내부고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 물론 ‘배신자’ 낙인에 대한 공포는 이해할 수 있다. 자유롭다는 미국에서도 내부고발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도시바는 우리 기업에 무엇을 말하는가?

도시바는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우량기업이었다. 그랬던 도시바가 왜 이런 분식회계를 저질렀을까? 근본적인 배경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도시바의 경영진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이는 회계부정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모든 기업이 도시바처럼 한 것은 아니다. 히타치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인 7천 억 엔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이익이 나고 있던 HDD 사업조차도 추진 중인 사업전략과 배치된다고 매각할 정도였다. 그 결과, 히타치는 철도사업 등 주력사업에 집중하여 회생에 성공했다.

경영진과 직원 사이의 소통 부재, 내부고발의 어려움, 기업의 경영전략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우선 협조 등은 비단 도시바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 국기업에서도 익숙한 요소들이다. 우리의 내부고발 시스템은 과연 살아있는지, 사내 경영윤리가 공허한 슬로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할 일이다.

*참고 자료 - 『도시바 회계부정, 아베의 묵인... 일본,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회의를 던지다』 DBR에서 발췌 후 편집

* 이미지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ujjwalbajracharya/3292622636/>



SDGs로 알아보는 기업윤리

국내 기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사례(4)

-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는 ▲기후변화(71%),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55%), ▲교육(50%),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42%)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가지 목표 중 12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 기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SDGs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2014년 세계은행은 식품 손실 및 폐기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최대 3분의 1이 소비 전에 손실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했다. 스웨덴 식량 바이오기술 연구소가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통 과정 중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연 13억 톤에 달한다. 해마다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의 가치는 대한민국 돈으로 438조 원에 이른다.

음식물 뿐 아니라 각종 재화들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유엔개발계획은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유해폐기물이 4천억 톤에 육박했고,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고형폐기물의 양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우리는 친환경 제품 사용과 자원 절약 생활화, 재활용과 재사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원의 낭비가 계속되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인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2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인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만들어졌다.

[Goal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세부목표	내용
SDGs 세부목표 12.1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 이행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3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절반 감량 및 식품 손실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4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감소를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5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6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 도입 및 정보 보고를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7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8	모든 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a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b	지속가능한 관광의 영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12.c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사용을 조정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개선과 폐지를 목표로 한다.

국내 기업 사례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UN의 목표에 동참하고 교육을 통해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열두 번째 목표인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실천 사례들이다.

01 현대백화점 - 그린 패키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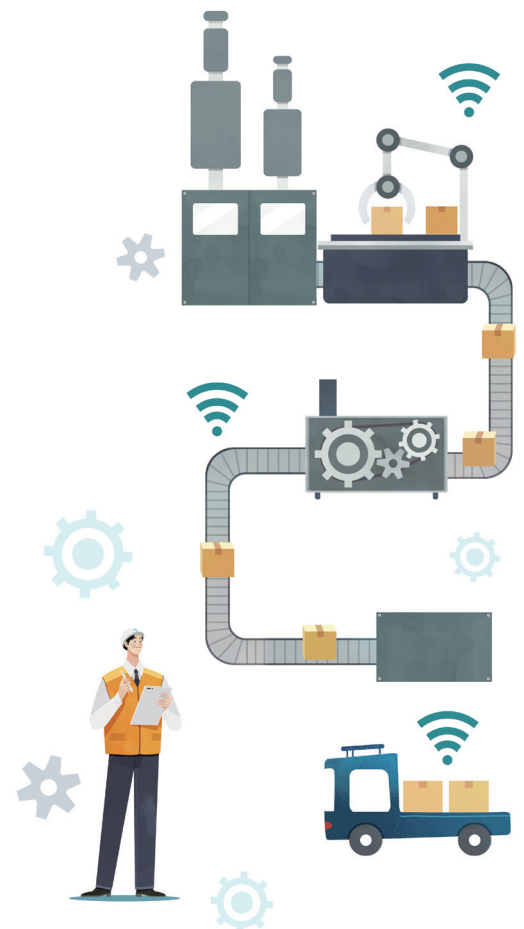
현대백화점그룹은 전체 계열사에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소재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그린 패키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에 해로운 플라스틱 비닐 대신, 땅속에서 6개월 안에 스스로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 비닐을 사용한다. 또한 일회용 소핑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장바구니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친환경 타이백 에코백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내년까지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393t, 스티로폼 포장재 사용량 66t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목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30년산 소나무 16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2 LG디스플레이 - 재활용을 위한 공정 개발

LG디스플레이는 201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자원순환성과 관리시범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폐기물 보관 및 운반방법을 개선하고 폐기물을 정확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필름 분리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TV패널을 만드는 과정에서유리에 부착된 필름 때문에 전체를 매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필름을 분리할 수 있게 되면서 폐유리를 100%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에 포함된 구리를 회수해내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버려지던 자원을 다시 활용하고 이를 유상판매함으로써 비용 절감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현대백화점그룹 사회책임경영백서 2019
 LG디스플레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8-2019



국내동향

국산 전기차, 코로나19 충격에도 판매량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국산 전기차는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9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차 수출은 4만 182대로 지난해 동기(2만 5454대)에 비해 57.9% 뛰었다. 차종별로 현대차 코나가 1만 6,856대로 30.4%, 기아차 니로가 1만 3,376대로 157.2% 증가했다. 현대차 아이오닉이 6432대, 기아차 쏘울이 3518대로 각각 18%와 88% 증가했다.

전기차는 5월에만 3억 9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지난해 동월대비 69.1% 뛰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18억 500만 달러로 54.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전기차 수출은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진 유럽 지역이 견인하고 있다. 프랑스는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을 대당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상향했고 독일은 4만유로 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올렸다.

최근 중국도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방침을 정하면서 향후 세계 전기차 시장도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 세계일보, 2020.06.09
코로나 충격에도 전기차 '나홀로 질주'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09514824?OutUrl=daum>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 채권 종합정보 홈페이지 개설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책임투자(SRI)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등을 포함한다.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종합 정보포털 사이트인 'SRI 채권 전용 세그먼트(<http://sribond.krx.co.kr>)'는 발행기관이 공시하는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투자자는 발행기관 마다 개별로 공시하는 채권 정보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여러 발행기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발행기관의 공시 정보를 한 데 모으고, 종목정보 및 통계를 제공해 투자자가 공신력있고 투명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조선비즈, 2020.06.15
거래소, 사회책임투자 채권 종합정보 홈페이지 개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2095.html



해외동향

미국 IT기업, 얼굴인식 AI기술 경찰에 판매 안 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IBM,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얼굴인식(컴퓨터비전)'이 인종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기술 개발을 중단하거나, 기술을 경찰과 같은 관공서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AI 기술 개발 못지않게 윤리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AI 얼굴인식은 AI의 사물인식 능력을 활용해 사람의 신원을 판별하는 기술이다. AI 업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사업 분야로, 약 99% 정확도로 특정인의 신원을 파악한다. 중국·미국에서 범죄자 식별과 같은 치안 유지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AI가 기존 데이터에서 인종·성별에 따른 편견도 함께 학습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서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향후 1년 동안 미국 경찰에 컴퓨터비전 기술인 ‘아마존 리코그니션’을 판매하지 않겠다”며 “AWS는 미국 의회가 얼굴인식을 윤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AI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될 때까지 이 기술을 미국 경찰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에도 대량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캘리포니아 경찰에 얼굴인식 기술 판매를 거절했다.

* 아주경제, 2020.06.14
“AI 얼굴인식 美 경찰에 안 팝니다...” 국내 IT 업계는 시장 확대만 골몰 대조적
<https://www.ajunews.com/view/20200614101834926>

코로나로 각광 받는 '지속가능펀드' 1분기에 55조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분기에 이른바 '지속가능한 투자'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투자분석 플랫폼 '모닝스타 다이렉트'에 따르면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착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 투자를 하는 지속가능 펀드에 유입된 전 세계 자금은 1분기에만 457억 달러(약 55조 600억 원)에 달했다.

JP모건은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자 메모에서 “코로나19 위기가 ESG 펀드에 대한 투자 추세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 참고 - 조선비즈, 2020.06.08
코로나로 각광 받는 '지속가능 펀드'...1분기에 55조원 몰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2749.html



행사소식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D 2020 (HLPF)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 2020. 이번 고위급 정치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10년’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를 숙의 및 공론화한다.

주최 SUSTAINABLE BRANDS'20

일시 7월 7일- 7월 16일

장소 뉴욕 유엔 본부

Webinars on the role of transparency in the transition to a ‘new normal’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진행하는 웹 세미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숙의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평가기관, 투자자, 보고 실무자 등이 함께 논의한다.

주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일시 7월 2일 오후 3시~오후 4시 30분,

7월 14일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

7월 16일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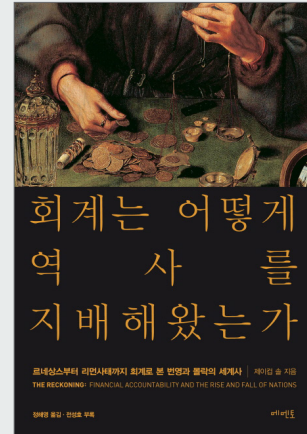
7월 21일 오후 3시~오후 4시 30분

등록 <https://globalreportingnews.org/4J5-6WW07-58VS6X9MD1/cr.aspx>



문화 속 기업윤리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 “집이 곧 국가다.” 태양왕으로 불리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남긴 말이다. 이러한 절대왕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회계에 능통했던 프랑스의 재무총감 콜베르가 있다. 그는 복식부기의 원리로 작동하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개발해 국가와 사회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 콜베르는 루이 14세를 위한 휴대용 회계장부도 만들었다. 장부 원장이자 프랑스의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한 설명서였다. 그야말로 회계가 국가경영을 위한 첨병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콜베르가 사망하자 국가 회계 시스템을 폐기해버렸다. 회계장부가 자신의 권력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점과 비리를 감시하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루이 14세는 국가 회계에 대한 감사도, 중앙집권적인 회계 체계도 깨뜨려버렸다. 1715년 루이 14세가 사망할 무렵, 프랑스의 재정은 이미 파산 상태였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얼마 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왕가를 무너뜨리고 만다.

리먼 사태 역시 루이 14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리먼은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분식회계를 숨겨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자산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로마 시대부터 전제군주 시대를 지나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정 스캔들과 회계조작 사건은 늘 있어왔다. 어쩌면 거짓말은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재정의 투명성이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가 되는 이유다.

* 이미지출처: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8614324&orderClick=LEa&Kc=#N>

지식1G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기업을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
- ▶ 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에 첨부될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의견	의미
적정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감사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음.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은 아님.
한정	감사인의 감사 범위가 제한됐으며 회계 기준 위반사항이 있지만 경미한 수준.
부적정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 회계기준을 위배.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의견 표명이 불가능.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거나 독립성 결여로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1. 평소 한국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기업 J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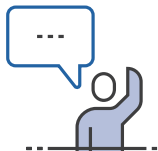
아직 세계적인 모범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도 면에서 크게 발전했다고 보는데요. 일반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부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제도도 점점 더 다양한 시선과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과거에 이름만 대면 하는 대기업들의 회계부정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감사인들의 눈높이도 엄격해졌습니다. 감사한 기관의 분식회계가 밝혀질 경우 회계법인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으로 인한 리스크 대비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Q2. 기업 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기업 H주임

먼저 내부고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심에 따라 비리를 고발했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경영진과 일반 직원 사이에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해요. 목표보다 실사 성과가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보고할 수 있어야, 매출을 부풀린다거나 이미 받지 못할 돈인데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는 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때 이익이 있어야, 최소한 진실을 말했을 때 불이익은 없어야 회계가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자퀴즈



Q. 다음 중 이번 호에서 소개한 회계부정 사례가 아닌 것은?

- ① 영국 맨체스터시티 FC의 스폰서 계약 규모 조작
- ② 한국 대우그룹의 자산 조작 및 차입금 누락
- ③ 중국 루이싱커피의 음료 판매량 조작
- ④ 독일 폭스바겐의 배기량 조작



지난 호 정답자는
서동욱 님, **우명일** 님,
정무식 님, **곽중문** 님,
류세형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acrcbusinessethics@gmail.com)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